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이 예배 자료는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준비를 위한 목회자 및 지도자 자료집의 일부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집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예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은 에베소서 2장 1~10절과 요한복음 3장 14~21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통이 헤드라인이나 숫자, 폭풍과 화재, 전쟁과 굶주림, 이주와 상실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전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동정 이상의 것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은 그리스도인의 나눔이 단순한 재정적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증언임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도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실망한 채,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위험에 둘러싸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요한복음 3장은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의 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평화로운 세상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안정된 세상만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며, 편안한 세상만을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세상, 삶의 터전을 잃은 세상, 홍수로 피해를 본 세상, 굶주린 세상, 전쟁으로 상처 입은 세상,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 그리고 여전히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이 중요한 이유

신실하고 체계적이며 자비로운 대응의 필요성은 여전히 매우 시급합니다. 구호위원회와 세계선교부는 그들이 수행하는 인도주의적 사역을 재난 구호와 복구, 이주민과 난민 지원, 환경 보호, 농업 및 식량 안보 등의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이상의 홍수, 열대성 폭풍, 토네이도, 이주 사태, 사회적 혼란, 화재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사회가 인명 피해를 입고 주민들의 생계가 수년간 중단되는 국가적 재난에도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조기대응팀을 통한 긴급 구호와 비상 물품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난 직후의 필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구호위원회의 사역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화재, 겨울 폭풍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복구 활동과도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 구호위원회의 세계적인 증언은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전쟁과 강제 이주, 굶주림, 기후와 관련된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공동체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부는 가자지구, 콩고민주공화국, 우크라이나, 수단과 같은 지역에서 계속되는 고통을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인도주의적 현실의 일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난이 닥치기 훨씬 전부터, 난민들이 안전을 찾아 나서기 전부터, 위기를 겪은 공동체가 재건을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는 준비합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헌금은 구호위원회의 운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호위원회의 사역이 지속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특별 헌금이 필수적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모든 지정 헌금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구호와 회복, 그리고 소망을 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연대적 나눔은 실제 이렇게 작동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안의 교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구호위원회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며, 지역사회가 오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시키고, 세계 곳곳의 취약한 공동체를 돌보는 구호위원회의 모든 사역은 필요가 발생하기 전부터 준비된 교회의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만으로는 모든 폭풍과 분쟁, 기근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만들어 내는 모든 필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대적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무조건적으로 증언하는 존재가 됩니다.

함께, 우리는 조직된 사랑이 됩니다. 함께, 우리는 손과 발이 있는 자비가 됩니다.

실시간 사랑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은 교회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증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초대합니다. 홍수 이후, 구호 물품이 한 가정에 전달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난민 한 사람이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환영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재난 사례 관리 담당자들이 단 며칠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교회가 폭풍이 닥치기 전에 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 섬기며, 카메라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화된 사랑이며,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실시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러한 일을 하나요? 고통이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닥치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무언가를 했는지 묻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부주의했기 때문인지,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운이 나빴기 때문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을 때(요한복음 9:2~3), 예수님은 그러한 논리를 단호하게 배제하셨습니다. 재난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재난은 그저 상실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정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구호위원회 역시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왜 섬길 것인지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와 함께 앉으시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이나 국적, 혹은 도움받을 만한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에도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이나 종교, 성별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고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그 고통에 응답하도록 교회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온전히 주어집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은 우리에게 관대함이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관대함은 움직입니다. 관대함은 준비합니다. 관대함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관대함은 긴 여정 동안 함께합니다. 관대함은 "누가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관대함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가?"라고 묻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은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은혜는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은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제자를 세웁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헌금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운영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헌금은 구호위원회의 행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정 헌금의 100%가 해당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게 합니다. 여기에는 재난 대응, 난민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및 기타 인도주의적 사역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목적을 가진 관리입니다. 우리의 연대적 나눔은 우리의 긍휼이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세상은 사랑을 말하기만 하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산간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지역에 찾아가는 교회,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교회, 난민과 이주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교회, 굶주림과 환경 위기, 그리고 장기적인 회복의 현장에 찾아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구호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가 진실성과 겸손,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연합감리교구호주일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헌금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헌금이 단순한 기부가 아님을 기억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세상 앞에 증언하는 일입니다.

함께, 우리의 관대함은 소망을 일으킵니다.

함께, 우리는 영향력을 위해 연합합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냅니다.

스테파니 무어 목사·박사, 서노스캐롤라이나연회 전도 담당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소망과 구호, 지속적 회복 사역을 제공합니다.